우분 연료화 촉진 위한 규제특례 추진

전북도, 우분 연료화사업 산자부에 특례 신청… 새만금 수질개선 · 온실가스 감소 · 탄소중립 기업유치 등 '1석3조' 기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 연료화사업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분 연료를 생산·공급·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 내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이 협업해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27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한 끝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승인 이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전북만 유일하게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승인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제조시 50% 미만 보조원료 혼합으로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미운행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새만금수질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소, '재생에너지(RE) 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유치 등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철도차량 빈대 확산 방지' 14일 서울시 구로구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구로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철도시설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일 대입 수능… 전북경찰 · 소방, 시험장 특별관리 돌입

내일 6시 30분부터 총 426명 인력 · 순찰차 등 장비 100대 투입

경찰·소방이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수능시험장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1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전북에서는 1만6805명의 수험생이 65곳에서 시험을 치른다.

먼저 경찰은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수험생의 원활한 입실을 위해 324명의 경력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102명 등 총 426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 100대를 투입한다.

문답지 이송지원, 문답지 보관소 경비, 시험장 경비, 답안지 보관 및 이송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안전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입실시간대(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해 수험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터미널과 주요 교차로 등 27곳에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운영해 수험생의 원활한 이송도 지원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시험장 주변을 순찰하며 차량통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험생 탑승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의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 후 도보 입실하도록 유도하는 등 시험 시작 전까지 지속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소방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장에 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관 등 66명의 소방력을 배치한다. 소방안전관리관은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수험생 이송을 지원하거나 시험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청각, 지체장애 학생 등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는 구급차 1대를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도내 시험장 65곳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소방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수능 안전 관리 철저히 이행 주문

전 시험장 구급대원 배치 · 사이렌 울림 금지 등 당부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16일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수송과 방역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방역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수능 당일 도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능 시험 종료 후 예상되는 인파 밀집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수능시험장 6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을 비롯해 시험장 출입구·비상구 개방상태 유지 및 소방안전교육을 마쳤다.

또한, 전 시험장에 구급대원 1명을 배치,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16일 시험 당일에는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수험생 수송 지원에 나서고 사이렌 울림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원활한 수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14일 개인 SNS를 통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곁을 지켜준 가족과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여러분의 앞날이 가능성과 희망으로 빛나길 바라고 지금껏 잘해 온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해 낼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 '밑그림'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주도하는 한국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의 밑그림을 그린다.

시는 1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정헌율 시장, 장경호 익산시의원(의원연구단체 익산시 식품산업연구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진흥원, 푸드테크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수립과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선정 등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해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푸드테크 산업 동향,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푸드테크 연계 방안, 연구개발의 중요성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매년 고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적용과 연구개발의 강화가 선결 과제"라고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창 심원 · 무장 한우농가서 럼피스킨 확진

정밀검사 결과 모두 양성 확인

14일 고창군 심원면 한우농가(30두), 무장면 한우농가(8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전북도 정밀검사반이 고창 발생농가 반경 3km내 예찰중 피부병변 등을 발견해 정밀검사에 들어간 심원면 한우농가와 고창 해리면 발생농장 방역대내 농가 임상 예찰중 발견된 무장면 한우농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고창 발생농가 방역대내에서 지속적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창 소 사육농가에서는 항체면역력이 강화되는 11월 24일까지는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당부드린다."며, "임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